

재혼 가정의 비극과 그 너머*

-〈김인향전〉의 정동(Affect)과 물질적 얽힘을 중심으로-

정혜경**

〈차례〉

1. 서론
2. 비극의 선재(先在)와 가정의 파탄
3. 비극의 이행과 가정의 환상적 재건
4. 결론을 대신하여: 비극의 물질적 경로

〈국문초록〉

본고는 정동과 물질적 얽힘의 관점에서 조선 후기 계모형 가정소설 〈김인향전〉을 재해석하여 비극의 작동 원리와 그 이면에 숨겨진 서사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비극의 문제가 특정 인물과 이념에 고정되지 않고,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얽힌 물질적 장 안에서 역동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우선, 재혼 가정의 정동 역학을 분석함으로써 가정 내 갈등과 비극이 어떻게 조직되며 그것이 인물과 사건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본다. 가족의 비극은 계모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선재(先在) 한다. 여기서 전처 왕씨의 유언은 정동적 사실 논리로 작동하며, 아직 도래하지 않은 계모를 ‘미래의 위협자’로 지속해서 배척하는 시각을 제공한다. 더구나 재혼이 위태로워진 가정의 회복과 계모로부터의 위협이라는 상충하는 정동적 딜레마에 기반해 성립함으로써 갈등과 폭력의 조건이 마련된다. 이 과정에서 계모는 기존 구성원들이 형성한 정동 압력의 장에 놓이며, 비극을 파열시키는 몸으로 자리한다. 그러나 비극은 계모라는 개인의 악행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 이 논문은 2026년 2월 11일 한국고전연구학회 제133차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당시 토론을 맡아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이채은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2024학년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강남대학교 KNU참인재대학 부교수

의심과 수치, 전처 지식들의 무력감, 비인간 행위자들의 개입이 얽힌 정동의 연쇄 작용으로 가속화된다. 나아가 가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정동은 외부로 향해 초월계와 현실계를 가로지른 강력한 정동 공동체를 구축하고, 가정의 문제는 국가 권력 및 외부 공동체의 개입이라는 사회적 돌봄 형태로 수습된다. 인향 자매의 재생은 신원 회복의 차원을 넘어 소멸하지 않으려는 정동의 운동성으로서 해체된 가정을 재건하고 자매의 물질적 실체인 몸을 되찾으려는 서사의 필연적 과정으로 자리한다.

가정의 비극은 몸, 공간, 정보라는 물질적 경로를 거쳐 구체화된다. 첫째, 이 작품에서는 비극을 감내하는 몸과 비극을 생성하는 몸으로 분리하고, 여기에 모성을 둘러싼 정동의 질감을 앓는 모성과 가족을 위협하는 몸쓸 모성으로 불균형하게 분배함으로써 계모를 정동의 소외자(affect aliens)로 고착시킨다. 이러한 정동의 비대칭적 비극과 분배는 기호와 정동의 순환적 누적으로 전개되는 정동 경제(affective economies)로 가능하며, 계모의 정동을 규범화,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가정의 실질적 문제는 개인의 악으로 환원되고, 계모를 지속해서 악마화하는 정동 정치가 발현된다. 둘째, 작품의 공간은 사건의 배경에 머물지 않고 정동을 응축, 이행, 통합하는 수행적 장치로 작동한다. 가정에서 출발한 비극은 사회적 재난으로 확장된 후에 다시 가정 안으로 회수되는데, 이와 같은 공간적 경로는 비극의 본질적 문제를 축소하고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소문, 유언, 편지, 제문과 같은 정보의 물질적 파동은 인물의 감정과 판단에 간섭을 일으키며 비극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하는 또 다른 행위소로 작용한다. 이처럼 비극의 물질적 경로는 작품의 비극 원리를 밝히는 데서 나아가 재현되지 않은 텍스트 사이,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를 전달해준다.

주제어 계모형 가정소설, 김인향전, 재혼, 비극, 정동, 물질적 전회, 비인간 행위자

1. 서론

<김인향전>, <양풍운전>, <어룡전>, <장화홍련전>은 재혼 가정의 형성, 파탄, 해체, 그리고 재건을 다루는 조선 후기 계모형 가정소설이다.¹⁾

1) 신해진 선주, 『조선후기 가정소설선』, 월인, 2000, 4쪽. 이하 작품 인용은 이 책을

이들 작품군에서는 갈등과 비극의 원인을 계모의 타고난 성품이나 도덕적 결함에서 기인한,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환원하여 모든 책임을 새로운 가정에 편입한 계모에게 떠맡긴다. 그렇게 계모라는 한 여성은 선악의 이분법적 논리로 구조화되어 평온한 가정을 파괴한 원흉, 즉 사회적 악으로 낙인찍힌다.

계모를 적대시하는 문학적 상상력 이면에는 가부장제의 문제와 여성 억압의 상흔이 숨어있다.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계모의 악행과 폭력성은 가부장제라는 지배 이념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²⁾ 계모가 포악하고 잔인할수록 가부장제의 작동 논리가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도 이 때문이다. 가족 붕괴의 책임 또한 계모에게만 있지 않다. 그 책임이 무능력한 가부장과 자식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전처 자식에게도 있으며,³⁾ 이 과정에서 계모가 가부장제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점도 규명되었다.⁴⁾ 이는 계모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몸이며, 가족의 비극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와 결부된 구조적 산물임을 보여준다. 이로써 재혼 가정의 비극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것이 무엇을 위해 복무했는지가 한층 명확해졌다.

그러나 재혼 가정의 비극 사이, 그리고 지배 이데올로기로 추상화된 현상 너머에는 아직 포착되지 않은 또 다른 서사와 작동 원리가 존재한다. 가정의 문제 역시 특정한 가족 구성원이나 이념에 국한되지 않으며, 인간

따른다.

- 2) 이승복, 「계모형 가정소설의 갈등 양상과 의미」, 『관악어문연구』 20(1),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5, 271-291쪽.
- 3) 한상현, 「김인향전 주인공의 인격적 성향과 가정비극의 상관성」, 『고전문학연구』 17, 한국고전문학회, 2000, 199-237쪽; 이지하, 「〈김인향전〉의 인물형상화와 작품지향성의 관계-〈장화홍련전〉과의 비교를 토대로」, 『동양고전연구』 38, 동양고전학회, 2010, 137-167쪽.
- 4) 윤정환, 「계모를 위한 변명-『장화홍련전』 속 계모의 분노와 좌절」, 『민족문학사연구』 57,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63-86쪽.

과 비인간을 포함한 여러 행위자와 얽힌 물질적 장(場) 안에서 역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물질이 접히고 펼쳐지는 동적 현상을 염두에 두고 비극의 문제를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물질성이 단순한 배경이나 사물의 속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감정과 행위, 나아가 사건과 의미를 조직하는 능동적 힘으로 기능하며,⁵⁾ 비극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해명하는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에 본고는 지금까지 인물의 성격이나 이념적 구도로 수렴해 온 재혼 가정의 비극을 정동과 물질적 전회의 관점에서⁶⁾ 재조명하고자 한다.

문제는 물질성이 전면화되지 않은 텍스트에서 물질성과 행위자의 얽힘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가에 있다. 이때 비재현적 물질성에 접근하는 실마리가 되는 것이 정동이다.⁷⁾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 미세한 감각으로 전달되는 정동은 실제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점에서⁸⁾ 재현 너머를 읽는 렌즈가 된다.⁹⁾

정동은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며,¹⁰⁾ 서로 다른 질감, 시간성, 속도성, 공간성을 갖는 속성, 역량, 양태, 에너지, 조율, 배열, 강도들로 신체에서 생성, 작용, 전달된다.¹¹⁾ 또한, 인간

5) Kameron Sanzo, *New Materialism(s), Genealogy of the Posthuman*, April 25, 2018, <https://criticalposthumanism.net/new-materialisms/> (접속일자: 2026.01.11)

6) 물질적 전회는 인식적 전회와 언어적 전회를 지나 인간중심주의와 관념론을 극복하고,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문화, 물질과 정신, 주체와 객체 등 근대적 사유의 핵심 구조인 이원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론적 배경이 된다. 박준영, 『신유물론, 물질의 존재론과 정치학』, 그린비, 2023, 27쪽.

7) 알리 라라 위움, 권명아 옮김, 『정동 연구 지도제작』, 갈무리, 2025, 37쪽.

8)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옮김, 『정동정치』, 갈무리, 2018, 25-26쪽.

9) Phillip Vannini 위움, 김수정 외 8인 공역, 『비재현적 방법론: 연구를 재상상하기』,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15-46쪽; 알리 라라, 앞의 책, 28쪽.

10) 브라이언 마수미(2018), 앞의 책, 25-26쪽.

11) 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그위스 편저, 최성희, 김지영, 박혜정 옮김, 『정동 이론』, 갈무리, 2016, 14-55쪽; Hayden Lorimer, “Cultural geography: Non-

의 신체에서 신체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작용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비인간적 역량을 가진 물질성과 마주침 속에서 형성되는 비의식적인 힘이기도 하다.¹²⁾ 다시 말해 정동은 인간과 비인간, 신체와 물질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발생하는 강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동은 대상이나 기호에만 거주하지 않고, 특정한 신체와 대상, 기호 사이를 순환하면서 시간에 걸쳐 사회적, 정치적 가치를 축적하는 정동 경제로 작동한다. 즉, 정동은 재현 이전의 강도가 아니라 기호와 신체에 달라붙어 권력의 효과를 생산해낸다.¹³⁾ 물론 마수미와 아메드의 관점 사이에는 이론적 긴장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비재현적 물질성과 행위자의 얽힘이 어떻게 정치적 효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추적하기 위해 두 논의를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차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동 이론에 주목한다면 감정과 사유에서 놓친 부분을 채워 텍스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동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특정한 사유를 전개할 때, 그 이면에서 작동해온 기억, 습관, 반성, 경향의 축적 등을¹⁴⁾ 가시화해주기 때문이다. 이 관점은 몸, 사물, 공간, 제도 같은 이질적 요소들이 어떻게 접속해 인물과 서사의 흐름과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 그에 따라 행위의 가능성이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지를¹⁵⁾ 밝히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representational conditions and concern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2(4), 2008 p.552.

12) Tony D. Sampson, “Affect, Cognition and the Neurosciences”, *Athenea Digital* 20(2), 2020 p.4.

13) Sara Ahmed, “Affective Economics”, *Social Text* 79, 22(2), Duke University Press, 2004, pp.119-121.

14) 브라이언 마수미(2018), 앞의 책, 27쪽.

15) Raymond L. M. Lee, “Affectivity, subjectivity, and vulnerability: on the new forces of mass hysteria”, *Subjectivity* 15, 2022, p.20.

기왕의 연구에서도 정동의 자원으로 볼 수 있는 전처 지식들의 고통과 슬픔, 계모의 분노, 이를 바라보는 주변인과 독자의 증오와 혐오 등의 문제가 다루어졌다.¹⁶⁾ 최근에는 <장화홍련전>을 대상으로 정동의 이행 양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¹⁷⁾ 이를 통해 정동 연구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서사 내적 정동이 텍스트 외부의 대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밝혀졌다.

다만, 기존 논의에서는 정동의 원천을 인물의 감정으로 귀속시키거나 비극의 원인을 혈연 중심 가족 관계와 가부장제 질서로 추상화한 경향이 있다. 연구 대상과 범위 또한 인물의 정동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정동은 인간의 주체성으로 고정할 수 없는 힘으로, 사물, 기술, 비인간 생명체, 담론, 소음의 장, 생물 집단에서도 발생한다.¹⁸⁾ 따라서 그 대상을 비인간 행위자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때 물질의 역능이 다른 행위자와의 마주침 속에서 인물과 사건의 향방에 간섭하여 정동을 산출하거나 변형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부재하거나 교체될 때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 그 작동 방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고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인간 행위자들의 움직임에 관심을 두는 한편, 인물을 특정 관점으로 전제하거나 선과 악, 피해자와 가해자, 억압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텍스트에 접근하려고 한다. 나아가 작품에 등장하는 몸을 고정된 실체가

16) 윤정환, 앞의 논문, 63-86쪽; 강지영, 「분노와 혐오로 읽는 계모 서사- <어룡전>, <인향전>, <장화홍련전>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85, 우리문학회, 2025, 33-56쪽.

17) 이채은, 「<장화홍련전> 속 정동 이행의 양상과 서사적 효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4, 325-358쪽.

18) Derk P. McCormack, "For the love of pipes and cables: a response to Deborah Thien", *Area* 38(3), 2006, pp.330-332; Derk P. McCormack, "Molecular affects in human geographi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39(2), 2007, pp.359-377 (as cited in Hayden Lorimer, op.cit., p.552)

아닌 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반응하는 동적 몸으로 재설정하여, 이를 개체의 총합이 아니라 얽힘 속에서 출현하는 물질화 과정으로¹⁹⁾ 이해할 것이다.

여기서는 <김인향전>을 우선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정동과 물질적 얽힘은 여타 고소설에서도 발견되는 사안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개입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정동이 보이지 않는 내밀한 사의 힘으로 작동하며 인물의 행보와 사건의 방향을 규율한다. 무엇보다 정동의 운동성이 역동적으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일차적 분석 대상으로 적합하다.

이에 본고는 재혼 가정의 비극과 지배 이념으로 추상화된 현상 너머에 숨은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 작동 원리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김인향전>에 나타난 재혼 가정의 정동 역학을 분석함으로써 갈등과 비극이 어떻게 조직되고 그것이 인물과 사건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재혼 가정의 성립, 파탄, 그리고 재건에 이르는 여정을 여러 행위자가 얽힌 물질적 장에서 추적하되, 2장에서는 정동의 흐름이 변곡을 맞이하는 재혼 성립과 가족 살해로 치닫는 파국을 중심으로 다루고, 3장에서는 가정 내부에서 조율되지 못한 정동이 외부 공동체로 이행하여 비극의 봉합으로 이어지는 궤적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재혼 가정의 문제가 여러 물질적 경로를 거쳐 구성된다는 점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해 비극의 물질적 경로를 몸, 공간, 정보를 중심으로 집약하고 남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9) Karen Barad,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7, p.ix; p.51. (박준영, 앞의 책, 395쪽: 413쪽에서 재인용); 박준영, 위의 책, 416쪽; 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앞의 책, 33쪽.

2. 비극의 선재(先在)와 가정의 파탄

이 장에서는 <김인향전>에서 재혼 가정이 어떻게 성립하고 어떤 경로를 거쳐 파탄에 이르는지를 추적한다. 이 과정에서 재혼 가정을 둘러싼 다층적 문제가 여러 행위자가 얽힌 정동의 역학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접근이 계모가 자행한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그 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이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이는 비극의 책임 소재를 분산하거나 계모를 미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극 속에 접힌 주름을 펼쳐, 그사이에 존재하는 복잡미묘한 이야기와 비극의 지형을 보다 입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다.

2.1. 정동적 딜레마 속 재혼 가정의 성립

재혼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성사된다. 상처(喪妻)한 김석곡이 망설임을 거듭한 끝에 재혼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 전환 동인은 무엇인가. 이에 답하려면 전처 왕씨가 죽기 전, 가족과 공간을 에워싼 정동 에너지와 그 흐름부터 다시 짚어봐야 한다.

김씨 부부는 “국태민안(國泰民安)하고 시화년풍(時和年豐)”한 시절, 효우(孝友)한 자식과²⁰⁾ 함께 풍요롭고 안정된 결혼 생활을 누린다. 하지만 가족을 감싸고 있던 온기는 왕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비통함과 불안정의 기류로 급변한다. 집이라는 공간 역시 우울한 색조로 물들며 생기를 잃는다. 인향당 후원의 오동나무 잎이 힘없이 떨어지고 이를 본 인향 자매가 한숨을 길게 쉬며 눈물을 비 오듯 흘리는²¹⁾ 장면은, 외물과 접촉에서 비롯된 즉각적인 자매의 신체적 반응으로 모친에 대한 상실감과 그리움이 자매의 몸에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왕씨가 죽은 후로 집은 결핍이 빚어내는

20) <김인향전>, 앞의 책, 437쪽.

21) <김인향전>, 위의 책, 437쪽.

무기력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삼 년 상을 치렀을 무렵에 이르면 집안에 누적된 정동이 가족의 몸을 장악하며 통곡, 기절, 불면으로 표면화된다. 남매는 모친을 부르짖다가 때때로 기절하고,²²⁾ 김석곡은 기우는 가산 탓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여기에 자율신경 반응이 일시적으로 끊기는²³⁾ 강도 높은 정동에 사로잡힌 아이들의 울부짖음이 포개지면서 아버지로서 김석곡을 한층 더 괴롭게 만든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가부장에게 인지적 각성(걱정, 반추, 침투적 사고)을 일으키는²⁴⁾ 한편, 자신이 아니라 왕씨가 살았어야 한다는 생존자 죄책감에²⁵⁾ 가까운 감정을 불러온다. 신체에 쌓여있던 정동이 죄책감이라는 특정한 감정으로 의식의 표면에 떠오른다. 그간 정서적 결핍, 양육의 공백, 경제적 곤궁에서 비롯되어 침잠해 있던 정동들이 울음소리에 일시에 깨어난 것이다. 이렇듯 가족의 정동은 서로 맞물려 부정적 정동 회로를 형성하고, 공동체는 삶의 동력과 벡터를 잃은 채 슬픔과 무기력, 그리고 불안에 잠식된 위태로운 상태에 처한다.

흥미로운 점은 가족을 감싸고 있던 이러한 위태로운 정동의 흐름이 정씨의 외의 재혼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당시 김석곡에게는 모

22) <김인향전>, 위의 책, 439쪽.

23) 강도와 자질은 모두 즉각적으로 몸에 체현된다. 강도는 순수한 자율신경 반응으로 체현된다. Brian Massumi, op.cit., p.25.

24) 불면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인지적 각성은 인지적 과잉 활성화 상태를 의미하며, 걱정과 반추, 침투적 사고 등을 포함한다. 조영은, 권정혜, 「불면증에 대한 스트레스와 인지과정의 통합 모형」,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1), 한국임상심리학회, 2012, 136쪽.

25) 생존자 죄책감은 생존자가 내가 살아남음으로써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지하는 등 죄책감, 자괴 박탈감, 수치심, 불안, 애도 등의 정동을 드러낸다. Hannah Murray, Yasmin Pethania, Evelina Medin, “Survivor Guilt: A Cognitive Approach”, *the Cognitive Behaviour Therapist* 14, 2021, p.4; Karlyle Bistas, Ramneet Grewal, “The Intricacies of Survivor’s Guilt: Exploring Its Phenomenon Across Contexts”, *Cureus* 15(9), 2023, p.1.

성의 부재를 배우고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할 대안적 존재가 절실했다. 그런데도 작품은 이러한 내적 필요를 진경화하지 않고, 재혼을 주변의 권유에 떠밀린 가부장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그린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재혼을 주도한 인물은 딸 인향이다.²⁶⁾ 그러나 재혼은 다층적 행위자들이 갈마들며 계모에 관한 기존 정동을 재배열하고, 이를 통해 계모의 몸과 위치가 새롭게 조정되는 정동 역학 속에서 성립한다.

물론, 재혼을 가장 먼저 제안한 이는 인향이다. 그녀는 부친의 불안과 결핍을 포착하고 그 마음을 평안케 하고자 재취할 것을 청한다. 그러나 김석곡은 잘못된 후처를 들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선뜻 결정하지 못한다. 이에 인향은 문제가 생긴다면 자신이 지성으로 섬겨 계모를 개유하겠다는²⁷⁾ 부친의 불안을 누그러뜨린다. 그런데도 재혼에 대한 망설임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계모가 ‘미래의 위협’으로 그의 몸에 깊게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기실 ‘어떤 대상에 닿기도 전에 미리 그 곁에 가지 말라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말은, 그 사물을 더 두려운 것으로 만나게 하는 정동’²⁸⁾을 산출한다. <김인향전>에서도 계모의 몸은 가족으로 편입되기 전부터 이미 위협한 존재로 공론화되고, 거기서 파생된 불안과 두려움은 계모를 위협과 불신의 대상으로 가족의 몸에 새긴다. 그 진원지에 전혀 왕씨가 있다.

㉠ 부대 나 죽은 후의 어진 사람을 었더 가사를 맥기시고, 자식들을 불상히 생각하시고 착하게 양육하와 출가식혀 주심만 바라옵난이다. 또 자고로 계모와 전실 자식 사이에 의합지 못하와 가댁의 불의지변이 루루(屢屢)하오니 낭군은 명심하옵소서. 첩이 부탁하는 말삼을 불망하소서. 세상의 어린 자식 두고 죽

26) 한상현, 앞의 논문, 212쪽.

27) <김인향전>, 앞의 책, 439-440쪽.

28) 사라 아메드, 「행복한 대상」, 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앞의 책, 79쪽.

는 사람이 나 뿐이오릿가? 자고로 효자가 화을 만나기 쉬운 거시오, 절개 있는 신하가 성명을 보전하기 어려운 거시라. 수[舜]임금이 출탄대효로되 계모의 화을 당하시었고, 또 윤맹기도 효자로되 계모의 화을 당하였스니, 우리 인향 남매 지극한 효성이로되 필경 큰 화을 당할지라. 만일 나 죽은 후의 그런 황을 당하면 엿의가 엿지하며, 누라서 거두어 주리요. 죽은 혼백이라도 참아 눈을 감지 못하리라.²⁹⁾

② 너의 부친 다려도 부탁하였거니와, 부대 죽은 후라도 효성을 지극히 하여, 혹 계모를 엿들래도 친모와 갖치 효도하고 어린 동생들도 다 우에 잇게 지내라.³⁰⁾

위의 인용문에서 왕씨는 재혼을 강권하는 한편, 계모의 유입을 걱정하며 가족에게 대비책을 일러둔다. ①은 남편에게 재혼의 요건과 그에 따른 위협을 제시하고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당부한 대목이며, ②는 남매에게 효제(孝悌)의 도리를 주문한 것이다. 특히 남편에게 ‘명심하고’, ‘불망하소서’라고 거듭 강조한 데서 계모에 대한 한층 고조된 우려가 드러난다.

이러한 왕씨의 유언은 “힘든 모성의 애처로움”을³¹⁾ 대변하는 동시에 계모의 몸을 오염시키는 “정동 기반 논리”³²⁾로 작동한다. 눈여겨볼 점은 왕씨가 계모의 위협성을 역사적 사실과 통념에 근거해 논하는 듯하지만, 실은 “실제적 기반이 없는 정동적 사실(affective fact)”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³³⁾ 정동적 사실은 ‘아직 실제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며, 이에 기반했을 때 위협은 실제보다 더 강력한 현실성을 보증하게 된다.’ 이때 “정동적으로 정당화된 사실 논리는 주로 이중 가정문”

29) <김인향전>, 앞의 책, 438쪽.

30) <김인향전>, 위의 책, 439쪽.

31) 이지하, 앞의 논문, 148쪽.

32) 브라이언 마수미, 「정동적 사실의 미래적 탄생-위협적 정치적 존재론」, 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앞의 책, 102쪽.

33) 브라이언 마수미, 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위의 책, 99쪽; 103쪽.

으로 표현되는데, 왕씨 역시 “~한 계모가 들어온다면, 아이들은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 것이다.”라는 이중 가정법을 통해 미래를 현재로 끌어들이며 그 정당성을 확보한다.³⁴⁾ 곧, 남매가 계모에게 당할 위협을 미리 떠올리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죽은 혼백이라도 차마 눈을 감지 못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를 현재의 몸으로 받아낸다. 이를 통해 계모는 미래로부터 현재로 와서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잠재적 위협으로³⁵⁾ 가족의 몸에 새겨지고, 위협의 대상으로 오염된다. 앞서 김석곡이 부적절한 후처를 들일까 염려하며 재취를 거듭 머뭇거린 까닭도 이러한 정동적 사실 논리에 기초한다.

그러나 재혼에 관한 김석곡의 입장은 또 다른 행위자 이화성과 마주하면서 전환된다. 이화성은 “대장부 세상에 처하여 어찌 홀로 있으리오”라며 거듭 권유하고, 김석곡은 “마지못해 재혼을 허락한다.”³⁶⁾ 이화성의 발언은 위태로운 가정을 회복하려는 안정 욕망을 재점화하는 동시에 남성으로서 실추된 명예를 압박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다만 재혼의 성립을 이화성의 공으로만 돌리기도 어렵다. 이는 그동안 누적된 불안, 걱정, 죄책감이 다른 행위자와 얽히면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재혼’에 대한 거부 강도가 약해지고 수용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방향으로 김석곡의 정동이 조율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족이 처한 불안정한 현실, 그것을 홀로 떠안은 남성의 위태로움과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줄 유일한 대안이라는 위치로 계모의 몸이 새롭게 조정됨으로써 망설임은 결단으로 이행한다. 흥미로운 점은 정동이 조율된 이후 재혼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이화성이 돌아간 지 수일 만에 정혼이 거론되고, 곧 택일하여 정씨와 혼인하

34) 브라이언 마수미, 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위의 책, 99쪽; 101쪽; 590쪽.

35) 브라이언 마수미, 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위의 책, 96-98쪽.

36) <김인향전>, 앞의 책, 440쪽.

기에 이른다. 이러한 인물의 반응과 사건의 전개는 가정 안정에 대한 욕망과 그간 응결된 불안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방증한다.

이처럼 재혼은 왕씨의 죽음 이후 가족 내부에 축적된 불안과 죄책감, 그리고 명예와 규범에 결박된 정동들이 응결된 산물이며, 가족의 결핍과 불안정을 관리하려는 방편 곧, 붕괴 직전에 놓인 가정을 되살리려는 대안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재혼 결정이 재혼을 회피하려는 정동과 이를 유일한 방책으로 받아들이려는 정동이 한데 공존하는 정동적 딜레마 위에 성립했다는 사실이다. 바뀐 말해 가정의 회복을 위해 재혼이 선택되었으나, 질감이 다른 두 정동이 한 몸, 같은 공간에 포개짐으로써 갈등의 조건이 예비된다.

이로 인해 계모는 재혼 전부터 미래 위협자로 배치되어 가족에게 불행을 가져올 몸으로 고착된다. 실제로 이후 서사에서 계모의 감정, 사고, 행위는 모두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되고 평가된다. 아메드가 니체의 표현을 빌려 말한 “정동의 회고적 인과성”, 또는 “예상적 인과성”³⁷⁾이 지속해서 작동한 결과이다. 이렇듯 계모의 악마화는 가족이 꾸러지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 셈이다. 비극 또한, 특정 사건으로 현행화되기 전부터 가족과 공간의 정동적 배치로 선재해 있었다. 그 결과 재혼에 대한 망설임과 선택 사이에 자리한 정동적 딜레마는 재혼 이후 가족을 정동 압력의 장으로 밀어 넣어 가정 폭력을 구조적으로 발생시키고 계모의 부정적 위치를 굳히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2.2. 정동 압력의 장과 물질적 얽힘 속 폭력의 가속화

정동적 딜레마를 풀고 출범한 재혼 가정은 어떤 행로를 걷게 되는가. 재혼 전에 가족 내부에 누적된 정동과 새로 진입한 계모의 정동이 충돌하

37) 사라 아메드, 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그위스 편저, 앞의 책, 78쪽.

며 갈등을 파생시킨다. 이때 가정의 비극은 계모라는 개인의 층위를 넘어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얽힌 정동의 압력 장에서 가속된다. 계모가 들어 오기 전부터 가정이라는 공간은 우울, 불안, 그리움, 상실감, 무력감, 불안 정성이라는 정동들로 적재되어 있었고, 가족 관계는 이미 오염된 정동적 균열을 내포한 채 출발했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이러한 정동 압력의 장에 포획됨으로써 갈등은 서서히 표면화된다.

주지하듯이 ‘어떤 개체의 생성 과정에서 개체의 본질이 중요하게 작동한 다기보다는 그 근방에 놓인 입력물과 개체가 놓인 장의 역동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³⁸⁾ 정씨 역시 새로운 터전에 안착하기도 전에 기존 공동체가 직 조해 놓은 정동 압력의 장으로 의도치 않게 편입된다. 그 순간, 그녀는 이전의 정씨가 아니게 된다. ‘동일한 개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위상적 장 안에서 성장하고 다른 개체와 마주치는지에 따라 다른 존재로 개체화되기’³⁹⁾ 때문이다. 정씨가 진입한 정동의 장은 이미 가정 경제의 궁핍과 친모 양씨로부터 흘러나온 잔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남편은 친모를 잃은 남편을 더욱 불쌍히 여기고,⁴⁰⁾ 전처 자식들은 친모를 잃은 후 계모를 마주 하고도 슬픈 회포를 잊지 못했다.⁴¹⁾ 애도의 부재로 가족 공간에 잔류하는 멜랑콜리와⁴²⁾ 남겨진 자식을 향한 남편의 연민이 정씨의 몸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그녀는 남편이 전처 자식을 더 사랑하고 아이들은 자신을 계모라고 여겨 행인만큼도 대접하지 않는다고⁴³⁾ 의식하는 단계에 이른다.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마침내 불만과 분노의

38) 박준영, 앞의 책, 452쪽.

39) 박준영, 위의 책, 같은 곳.

40) <김인향전>, 앞의 책, 450쪽.

41) <김인향전>, 위의 책, 452쪽.

42) 서유석, 「『김인향전』에 나타나는 애도작업(Travail du deuil)의 두 가지 방향」, 『현대정신분석』, 15(1),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2013, 130-133쪽.

43) <김인향전>, 앞의 책, 441쪽.

정동으로 이어져 그녀의 신체에 응축된다.

재혼의 시작점부터 가족의 “정향(orientation)”은⁴⁴⁾ 서로 어긋나 있었다. 아메드가 지적했듯이 가족의 행복은 가족 구성원이 가족이라는 대상에 향해 같은 방향으로 정향되어 있을 때, 즉 가족에게 충실하면 가족이 행복을 실현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할 때 가능하다.⁴⁵⁾ 그러나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긴 정씨는 겉으로는 따뜻한 모성을 내비치지만, 안으로 부단히 가족과 거리를 두기를 시도한다. 정씨의 위장은, 주변 사람들이 인향 남매를 친자식처럼 돌본다고 칭찬하고⁴⁶⁾ 인향도 계모를 만나 일신이 편했다고⁴⁷⁾ 느낄 만큼 완벽했다. 그러나 노복들 앞에서는 본심을 드러냈다. 노복들은 꾸밈음을 받지 않으려고 좋은 일든 좋지 못한 일든 모두 정씨의 비위를 맞춘다.⁴⁸⁾

그렇게 외적 따뜻함과 내적 적의가 공존하는 정동의 이중화로 가족들은 재혼 초기에 평온하다는 착각에 빠진다. 그러는 사이 계모와 노복의 억눌린 몸에서 흘러나온 에너지는 집안의 긴장과 불신의 정동으로 누적되고, 서로의 눈치를 살피야 하는 숨 막히는 기류를 조성한다. 이렇게 축적된 에너지는 정동 압력의 장에서 임계점을 향해 치닫다 마침내 폭력으로 탈바꿈한다. 그런 점에서 계모는 가족 비극의 출발점이라기보다는 기존 가족이 빚어낸 정동의 소용돌이 안에서 다른 방향의 에너지를 발산함으로써 응축된 부정적 정동을 가장 먼저 터뜨리는 파열점에 가깝다.

그렇다면 잠재된 갈등이 표면화된 계기는 무엇인가. 정씨가 시집온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친딸이 태어나면서부터 친자와 의붓자식의 위계가 가시

44) 사라 아메드, 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앞의 책, 72쪽.

45) 사라 아메드, 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위의 책, 같은 곳.

46) <김인향전>, 앞의 책, 440쪽.

47) <김인향전>, 위의 책, 452쪽.

48) <김인향전>, 위의 책, 440쪽.

화되고, 응축된 불쾌의 정동이 조금씩 새어 나오기 시작한다. 정씨가 고수 하던 정동의 이중화도 균열이 일어난다. 여기에 가정을 관리 감독하던 남편이 공무로 집을 자주 비움으로써 폭력은 마침내 실행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며 본격화된다. 계모는 가장 먼저, 전처 자식들에게서 양육과 돌봄의 대상 지위를 박탈한다. 인향 남매는 의식주의 결핍, 고강도의 노동, 놀이의 박탈, 감금과 분리 등으로 정서적, 육체적 학대를 겪으며,⁴⁹⁾ 가족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돌봄도 받지 못한다. 특히 빈곤과 결핍은 남매의 신체에 가혹한 폭력으로 새겨지며, 아이들은 친모가 있을 때 누렸던 풍족하고 따뜻한 정동과 극명한 대비를 경험하며 강도 높은 슬픔에 빠진다. 더욱이 이들에게 가해진 공간적 격리나 물리적 차단은 정서적 고립과 불안을 극대화한다. 이는 가족 사이에 순환해야 할 정동 회로를 차단한 조치로 남매가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한다.

이 지점에서 주의 깊게 볼 대목은 음식과 의복의 결핍 등 폭력의 물질적 환경이 남매를 위축시켜 이들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는 행위소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일상적 학대로 신체에 각인된 고통은 아이들이 마음껏 소리 내어 울지 못하는 억압의 기제가 된다. 인향이 동생에게 계모가 울음소리를 자신의 험담으로 오해하기라도 하면 집안에 야단이 나고, 독한 형벌을 받게 된다며 단속한 장면이⁵⁰⁾ 이를 바로 보여준다. 이전에 겪은 혹독한 폭력의 기억이 현실을 지배하며, “마치 머리에 벼락을 맞은 듯한”⁵¹⁾ 끔찍한 두려움으로 생생하게 재현된다. 이처럼 반복된 학대로 학습된 공포는 실재하지 않는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전처 자식들의 몸을 세차게 관통하며,

49) 인형은 나무를 하고 인향 자매는 뒷방에 갇혀 종일 일하며 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굶주림에 피골이 상접하고, 남루한 의복으로 추위를 피하지 못한다. <김인향전>, 앞의 책, 441쪽.

50) <김인향전>, 위의 책, 441쪽.

51) <김인향전>, 위의 책, 같은 곳.

이들의 감정과 사고, 행동과 태도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을 규율하고 지배 하기에 이른다. 과거에 가해진 위협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시간을 타고 공간을 넘어⁵²⁾ 인향의 기억과 신체를 잠식하며,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정동을 전면적으로 재배열했기 때문이다.

일상적 학대는 동냥하러 온 노파를 마주함으로써 인향의 모해 사건으로 확장된다. 노파는 무덤 위에 난 돌메밀로 만든 떡과 큰 구렁이를 먹여 인향이 임신한 것처럼 꾸민 뒤에 내쫓지는 계약을 제안한다. 전처 자식들을 “해할 뜻을 두고 앙양하던 차”⁵³⁾에 노파로부터 방도를 얻은 정씨는 “희색이 얼굴에 가득”⁵⁴⁾ 찰 만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힌다. 그녀의 기쁨이 앞으로 다가올 인향의 비극과 대비를 이룸으로써 서사적 긴장도 서서히 고조된다.

정씨의 모해를 실현하는 비인간 행위자는 목화밭과 떡이다. 목화밭은 인향이 평소 일하는 일상적 공간이면서도 이방인과의 언제든 접촉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노파의 접근을 허용한다. 목화를 따는 고된 노동은 인향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허기를 증폭시켜 노파의 떡을 거부하기 힘든 조건을 형성한다. 이렇듯 목화밭은 일상적 노동 공간이라는 친숙성과 열린 공간으로서의 노파의 접근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게 하는 동시에 인향의 신체를 결핍 상태로 몰아간다. 이때 떡은 그간 학대로 굶주려 배고픔에 과잉 각성된 인향을 정씨의 계약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정씨는 인향과 함께 목화도 따고 담소도 나눔으로써 인향이 품고 있던 불안과 두려움의 강도를 서서히 낮춰 경계심을 허물어뜨린다. 결국 기존 정동이 기만적으로 재조율됨으로써 인향은 경계심을 풀고 노파의 떡으로 모처럼 허기를 채우며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된다. 오랜 굶주림에 시달린 동생 인향도

52) 브라이언 마수미, 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앞의 책, 99쪽.

53) <김인향전>, 앞의 책, 441쪽.

54) <김인향전>, 위의 책, 442쪽.

언니가 가져온 떡을 받고 좋아서 날뛰며 먹는다.⁵⁵⁾ 이처럼 떡은 허기를 채워 즉각적인 포만감으로 만족 회로를 가동시킨다. 두 자매가 누린 달콤한 순간은 머지않아 닥쳐올 비극의 전조로 기능하며, 서사적 차원에서 긴장, 초조, 불안, 연민, 안타까움이라는 여러 겹의 정동을 누적시킨다.

정씨의 폭력은 당대 여성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실행(失行) 혐의를 인향에게 씌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끝내 그녀를 죽음의 과국으로 내모는 단계까지 이른다. 인향과 유성원의 혼담, 그리고 유성원의 과거 급제 소식은 모해의 또 다른 변곡점으로 작용한다. 이를 시샘한 정씨의 맹렬한 분노가 인향을 제거하려는 동기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혼담이 오가는 사이 가족 구성원들의 정동은 서로 엇갈리고 충돌한다. 정씨의 분노만이 아니라 부녀의 정동 역시 정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인향은 악화된 신병 때문에 혼례를 걱정하며 수심에 잠기지만, 이를 모르는 김석곡은 그저 사위의 급제를 반기며 기뻐한다. 부녀 사이의 정동 낙차와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엇갈린 정동 벡터는 결국 상호 공명에 실패한 가족 관계와 계모가 들어오기 전보다 훨씬 더 불안정해진 가족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계모에게는 인향을 죽일 실질적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정씨는 가부장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이때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가부장 김석곡이 가정 폭력의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계모를 지속해서 자극함으로써 인향의 실행 혐의를 가문 차원의 문제로 공론화하고 인향의 죽음을 가속하는 핵심 행위자로 기능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죽음의 가속 메커니즘 중심에는 의심과 불확신의 정동 순환 구조가 자리한다. 가부장의 침묵과 반복된 의심이 정씨의 신체에 고스란히 흡수되며 가해의 실행력을 증폭하는 한편, 정씨의 가해 행위가 다시 김석곡의 의심과 불확신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55) <김인향전>, 위의 책, 443쪽.

가장 먼저 정씨는 인향의 부정(不貞)한 행실을 조작해 가부장에게 고발한다. 하지만 김석곡은 정씨를 의심하며 ‘다시는 그런 말을 내지 말라’고⁵⁶⁾ 단속한다. 이것이 계모에 대한 1차 의심이다. 이 같은 남편의 반응은 정씨를 저지하기는커녕 그녀가 가해를 더욱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도록 추동한다. 정씨는 가부장의 ‘의심에는 확신’으로, ‘침묵(함구)에는 소문’으로 맞대응하며 사건을 키운다. 이를테면 노파를 불러 인향의 부정한 행실을 퍼트리게 하고, 춘삼에게는 인향의 처소를 왕래하며 부정을 증명할 편지를 숨겨두도록 한다. 계약에 동원된 소문과 편지는 정동 권력으로 작동하며, 가문의 수치를 유통하는 방식으로 가부장의 불안을 극도로 고조시킨다.

이러한 정씨의 전략은 적중한다. 딸의 풍문을 들은 김석곡이 서둘러 귀가해서 집안을 단속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정씨는 가문의 치욕을 말하며 죽어 더러운 꼴을 보지 않겠다며 손뼉 치고 소리를 지르는 과잉행동으로 인향의 죄를 묻도록 유도하지만, 김석곡은 그저 잠잠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미온적 반응은 정씨를 더욱 발악하게 만들고, 인향의 실행을 반복해서 제시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김석곡은 길게 탄식하고 전처 왕씨의 유언을 되새기며 재차 침묵할 뿐이다. 전처 왕씨가 예고한 위협자로서의 계모의 위치가 재활성화되면서 김석곡의 우려는 계모에 대한 2차 의심으로 굳어진다. 여기서 김석곡이 보인 긴 탄식과 기막혀 어쩔 줄 몰라 하는 태도에는 계모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데 따른 당혹감과 거듭되는 공세에 대한 피로감이 함께 배어 있다.

이처럼 가부장의 관망이 폭력의 연료가 되어 또 다른 연쇄 작용을 촉발한다. 김석곡이 침묵과 의심으로 일관하는 사이, 정씨는 가부장을 움직이기 위해 한층 거세게 반발하고, 이것은 다시 가부장의 불안을 자극하는 도화선으로 작용한다. 결국 김석곡은 아들 인형을 불러 진상을 묻는 행동을

56) <김인향전>, 위의 책, 447쪽.

개시한다. 하지만 아들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듣자 이번에는 실행의 혐의를 받는 인향을 직접 불러 문책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또다시 폭주한다. 무고함과 용서를 청하는 인향 남매의 감정과 논리가 교차하며 김석곡의 마음이 거기에 설득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 폭주의 기폭제가 된 것이다. 정씨가 먼저 죽겠다면 가슴을 두드리는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인다. 여기서 생성된 정동은 다시금 그의 신체에 달라붙어 전처의 유언을 환기시킨다.⁵⁷⁾ 정씨의 거친 행동과 인향의 ‘애매함’이 동시다발적으로 김석곡의 정동을 압박하는 동안 그는 계모에 대한 의심을 재생산하며, 결국 3차 의심에 빠진다.

의심과 불확신의 반복은 인물들이 서로 끊임없이 자극하며 가해를 증폭시키는 톱니바퀴 구조를 형성한다. 가부장이 의심하고 침묵할수록 계모의 공세는 거세지고, 이는 다시 가부장이 살인을 승인하도록 밀어붙이는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 결국 가부장은 정씨의 형상을 보고 “아주 겁을 내서”⁵⁸⁾ 인향을 죽이기로 결정한다. 의심과 불확신의 반복된 충돌은 인물들의 신체를 연쇄적으로 순환하며 누적된 압력은 끝에 인향에 대한 처분을 승인하는 파국으로 귀결된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김석곡이 딸의 실행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계모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도 못한 상태에서 왜 인향에 대한 처분을 그토록 신속하게 감행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선, 층층이 쌓인 계모에 대한 의심을 뚫는 임꺽값은 딸을 온전히 믿지 못한 불신의 정동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딸의 부정에 대한 반응, 남매에 대한 대응 태도, 사건 처리 방식 등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정동이 그 저변에 깔려 있다. 바로 실행이 외부로 알려졌을 때 가문과 자신이 받을 수치와 오명에 대한 공포가 그것이다. 인향의 실행 소식을 들은 김석곡이 가문의 수치를 은폐하기

57) <김인향전>, 위의 책, 453쪽.

58) <김인향전>, 위의 책, 453쪽.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정씨에게 함구하도록 했던 것도, 인향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죽여 종적을 없애겠다’며⁵⁹⁾ 호통을 친 것도, 그리고 죽음을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려고 심천동 연못에 빠져 죽으라고 명한 것도,⁶⁰⁾ 모두 가문의 수치와 모욕에 대한 김석곡의 불안과 초조함에서 비롯한다. 작품에서는 계모에 대한 의심의 층을 두텁게 쌓아 가족 살인의 책임이 그녀에게 향하도록 정동 정치를 구성하지만, 가부장은 비극을 끊어낼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과 자신의 정동적 압박에 휘둘림으로써 비극적 가족사를 완성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는 계모와의 대결에서 철저히 패배한 가부장의 모습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 폭력은 정씨의 의도와 모의, 노파와 춘삼이라는 대리적 행위자의 가담, 김석곡의 침묵과 불안이라는 인간적 행위와 더불어 음식, 치마끈, 목화밭, 떡과 같은 물질들의 수행성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여 발생한 사건이었다. 계모의 일상적 학대는 이처럼 다층적 행위자의 개입이 누적된 끝에 가족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 더욱이 계모가 미래의 위협자로 정동되고 죽은 왕씨의 잔존 에너지가 정동의 논리 기반으로 지속해서 침투했음에도 가부장 김석곡은 끝내 살인을 승인했다. 이는 재혼 가정의 잔혹한 비극이 특정한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나 불화에 머물지 않고, 가부장제가 가부장의 실질적 역할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자신을 지탱하는 역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3. 비극의 이행과 가정의 환상적 재건

이제 폭력이 살인 사건으로 변진 후에도 재혼 가정의 비극이 인향 자매

59) <김인향전>, 앞의 책, 447쪽.

60) <김인향전>, 위의 책, 451쪽.

와 김석곡의 연쇄 죽음으로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규명할 차례이다. 나아가 이 비극이 가정 내에서 멈추지도 수습되지도 못한 채 가정 밖, 즉 외가, 마을, 국가, 초월계로 확장되다가 다시 방향을 선회하여 가정으로 회귀하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비극이 계모의 처벌을 거쳐 인형자매가 재생하는 환상적 수법으로 종결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또 다른 열쇠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렇다면 비극이 어떻게 연쇄되고 가정의 재건으로 귀결되는지를 고찰해보자.

3.1. 정동 회로의 실패와 비극의 연쇄

앞서 논의했듯이 재혼 가정에서 응축된 불안, 소외, 의심, 수치심의 정동은 적절히 조율되지 못하고, 점차 증폭되어 가족 살해라는 비극을 구성했다. 이때 억울함을 호소하고 용서를 구하는 남매의 정동 역시 고강도로 발산되었으나 그 신호는 부친 김석곡에게 가닿지 못하거나 미약하게 부딪힐 뿐 국면 전환에 이르지 못했다. 즉, 정동이 발산되었음에도 수신되지 못한 이 상태는 정동 회로의 단절 혹은 실패와 다름없다. 결국 가족 내부에서 순환되지 못한 정동은 외부로 흘러 또 다른 정동의 흐름을 촉발하며 비극의 연쇄를 낳는다.

먼저, 재혼 가정에서 형성된 정동이 가족 구성원 간에 순환되지 못하고 정체됨으로써 비극이 연쇄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서사의 비극은 계모와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남성 가족 구성원과의 정동 회로가 단절되는 지점에서 비롯된다. 기존 논의에서 가부장제의 권위를 대변해 온 김석곡과 인형은 모두 우유부단하고 무능력한 인물로⁶¹⁾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이들의 무능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을 넘어 가족의 정동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는 신체적 역량의 한계로 확장해 이해할 필요가 있

61) 이지하, 앞의 논문, 157쪽.

다. 이러한 신체적 역량의 문제는 후술하기로 하고 가족 내 정동이 상호 순환되지 못한 일차적 배경부터 보면, 거기에는 공간적 분리가 있다. 김석곡은 공무로 집을 자주 비웠고, 인형은 계모의 감시와 명령으로 인해 6년 동안 인향을 단 한 번도 마주할 수 없었다.⁶²⁾ 공간적 분리는 미묘한 정동의 흐름을 가로막고 가족 간의 인지적, 감정적 상호작용을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동의 순환을 차단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동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는 신체적 역량의 한계에 있다. 그 가운데서도 정동적 민감성과 주의력이 약하다. 김석곡은 부쩍 수척해진 딸의 모습을 보고 걱정하며 연유를 묻긴 하지만, 아무 일이 없다는 답변에 그대로 돌아선다. 수척해진 외양은 딸에게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정동 신호였음에도 그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가족에 대한 두 남성 가족의 신뢰가 약하기는 마찬가지다. 인형은 격리 전까지 인향과 가까이 지낸 사이로 누이가 어떤 인물인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인향을 믿기보다는 그저 인향을 가여워하며 부친께 용서를 구할 뿐이다. 김석곡도 딸의 진실한 항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간악한 뜻을 품은 줄 어찌 알았겠느냐”며⁶³⁾ 분노했다. 이들의 반응은 인향이 가족의 정동 교환 회로에 편입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가족 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고통받는 가족의 정동을 수용할 주체가 부재하다는 점은 가족 공동체가 돌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이렇게 의지할 대상인 가족과 소통이 차단되면서 고통 지수와 내적 압력은 높아지고 가정은 비극의 무대가 된다.

이렇게 가족의 정동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자, 내부 정동은 또 다른 소통 창구를 찾아 이동한다. 문제는 정동 회로의 차단이 여성 가족 간에 정동적 공명을 과도하게 증폭시킨다는 데 있다. 인향의 고통에 가장

62) <김인향전>, 앞의 책, 456쪽.

63) <김인향전>, 위의 책, 450쪽.

먼저 공진하는 행위자는 죽은 친모 왕씨다. 그녀는 이미 사멸한 신체로서 현실에 토대를 둔 생존 가족과는 구별된다. 하지만 인향은 육체적, 정서적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죽은 친모에게 향했다. 왕씨는 딸의 울부짖음에 감응이라도 하듯 꿈에 나타나 인향을 감싸 안아줬다. 선행연구에서는 죽은 어머니를 애타게 찾는 인향에 대해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외상의 되풀이자”⁶⁴⁾ 모친에 대한 심리적 고착으로⁶⁵⁾ 해석했다. 실제로 왕씨와 딸들의 정서적 밀착은 강력하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인향의 인격적 성향이라는⁶⁶⁾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는 데서 나아가 가족 관계의 역동이라는 거시적 장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 재혼 가정이 친모와 연결된 인향 자매의 심리적 고착을 끊어내지 못했는가를 푸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정씨가 친딸을 낳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향은 계모 덕분에 편히 지냈다고 고백할 만큼 둘의 관계는 기만적이었지만,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만약 계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지속되었더라면, 친모를 호출하는 행위는 내면화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인향이 친모를 애타게 찾는 시점을 보면 이 점이 명확해진다. 인향은 계모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다른 가족과도 소통이 단절될 때 친모를 찾았다. 첫 번째는 계모의 계약에 빠져 신병에 시달릴 때였으며, 인형과 격리되어 속내를 털어놓을 상대조차 없던 순간이었다.⁶⁷⁾ 두 번째는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는 이 하나 없이 억울한 죽음이 임박한 시점이었다.

이렇듯 친모를 찾는 행위는 일관된 정동적 인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즉,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이나 아무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절망과 무기력의 정동이 임계점에 다다른 순간에 친모에게 향했

64) 서유석, 앞의 논문, 129쪽.

65) 한상현, 앞의 논문, 209-220쪽.

66) 한상현, 위의 논문, 199-235쪽.

67) <김인향전>, 앞의 책, 444쪽.

다. 인향이 친모에게 차마 슬퍼 못 살겠다며 데려가 그리던 정이나 풀어보
자고 애걸하는 절규에는 삶의 벡터를 잃은 회피의 정동이 배어 있다. 훗날
그녀가 인형의 만류에도 자살을 감행하는 데도 원통함과 명예를 더럽혔다
는 수치심을 넘어, 다년간의 가정 폭력으로 누적된 무기력과 회피의 정동
이 깔려 있다. 그런 점에서 친모를 찾은 행위는 현실의 고통 앞에 선 인향
이 선택할 수 있던 유일한 탈출구이자 필연적 대안이었던 셈이다.

여기서 인향이 절박한 순간에 부친을 찾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재혼을 부친에게 권유하고 훗날 외조모에게 혈서를 쓰는
인향의 성격을 보면, 부친에게 한 번쯤 계모의 문제를 토로했을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정혼자 유성원의
의복을 지으라고 당부하러 왔을 때 신병의 연유를 던지시 말할 수도 있었
음에도 끝내 침묵했다. 이러한 모습은 친모에게 ‘독사 같은 계모의 모해를
입어 죽게 되었다’라며⁶⁸⁾ 억울한 처지를 낱낱이 고발하고, 계모에 대한 원
망과 분노를 거침없이 표출했던 것과는 대조된다. 인향이 부친에게 함구한
이유를 효라는 가족 윤리의 실천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향이 부친께 “계모의 말은 두려워 차마 하지”⁶⁹⁾ 못했던 것은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누적된 학대와 폭력으로 인해 계모에 대한 공포가
신체에 내재화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향에게 김석곡은 정서적으로 안
전한 몸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부친에게 사실을 고할 경우, 자신의 진동원
에서 발생한 정보의 과장이⁷⁰⁾ 계모의 더 큰 폭력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예
견했기에 침묵한 것이다. 반면 친모는 이미 죽은 신체로서 정보의 과장이
차단된 안전한 몸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 까닭에 친모 앞에서는 계모를
“악독한” “독사”라고 거리낌 없이 부를 수 있었다.

68) <김인향전>, 위의 책, 453쪽.

69) <김인향전>, 위의 책, 446쪽.

70) 이토 마모루, 김미정 옮김, 『정동의 힘』, 갈무리, 2016, 182쪽.

친모를 찾는 동인과 시점은 인함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인향이 죽고 의지할 대상을 잃어버린 인함은 오라비 인형에게 가서 언니가 절명한 곳을 묻지만,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다. 그곳을 나온 인함은 곧바로 친모의 사당으로 가서 친모에게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고하고 원혼이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청한다. 이렇듯 두 딸에게 왕씨는 좌절된 답답한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로 기능한다. 비록 친모의 신체성은 사라졌지만, 그 존재는 꿈을 통해 생생하게 감각되고 사당이라는 공간을 통해 물질적 존재로 현행화된다. 그렇게 죽은 모친은 두 자매와 정동 공동체를 형성하며 강한 연대를 이루어낸다.

이렇게 형성된 여성 가족 공동체는 가족 비극을 차단하는 대신에 역설적으로 비극을 더욱 극단적으로 몰이붙이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바깥 말해 비극의 정동을 완충하는 지대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정동을 과잉 상태로 흘려보냄으로써 의도치 않게 비극을 심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양상은 친모와 인향이 공명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모의 계략으로 신병에 걸린 인향은 죽은 혼령인 모친을 찾고, 그 애걸하는 소리에 감응한 왕씨는 슬픈 곡성과 함께 나타난다. 그녀는 딸의 목을 끌어안고 울고, 간계에 빠진 딸을 걱정하며 또 다른 액운이 닥칠 것이니 조심하라고 당부한다.⁷¹⁾

그러나 인향에게 친모의 현몽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작동한 것은 아니다. 짧고 강렬한 재회의 기쁨은 위안으로 온전히 수렴되지 못한 채 오히려 상실의 감각으로 전도되어 슬픔과 그리움의 밀도를 더욱더 높이기 때문이다. 꿈에서 깬 인향은 친모의 얼굴을 지우지 못하고 그 말소리가 귀에 쟁쟁하여 새로운 슬픔에 잠겨 모친을 부르짖는다.⁷²⁾ 무엇보다 자식을 보호하는 왕씨의 언어는 위협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환기함으로써 인향을 지속해

71) <김인향전>, 앞의 책, 445쪽.

72) <김인향전>, 위의 책, 같은 곳.

서 걱정과 불안에 떨게 한다. 실제로 인향은 액운에 대한 친모의 말을 떠올리며 주야로 염려하고 탄식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의 불확정성이 현재의 정동을 활성화해⁷³⁾ 다가올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현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친모와의 만남 이후, 인향의 정동은 더 불안정해진다. 이러한 정동의 역설은 모친과의 심리적 애착을 다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된다.

더 놀라운 점은 비극의 정점에 놓인 인향 역시 인함의 죽음을 가로막기는커녕 오히려 그 죽음을 유인하는 행위자로서 가족 비극을 심화한다는 사실이다. 인함의 자살은 자율적 의사에 기반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은 계모의 꾸짖음, 죽은 인향 유품(기물)과의 접촉, 꿈에 등장한 인향의 지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유도된 결과이다. 이때 인함의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인향이다. 만약 인향이 꿈에 나타나 심천동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꿈으로 자매애가 한 차례 더 강하게 공명함으로써 인함은 언니를 따라 죽기로 한 결심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긴다. 인함은 꿈속에 형이 나를 찾아왔으니 어찌 있겠느냐며 잠에서 깨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심천동으로 향한다.⁷⁴⁾ 이렇게 인함의 부름에 인향이 감응하고 다시 인향의 부름에 인함이 재차 공명함으로써 가족의 또 다른 비극이 열리게 된다.

물론 인함의 자살로 이어지는 정동은 인향의 죽음 소식, 계모의 욕박지름, 그리고 남겨진 인향의 노리개와 기명(器皿)을 거치며 서서히 응결된 것이다. 인향의 유품은 언니의 부재를 물성으로 증언하며 인함의 상실감을 심화한다. 언니가 쓰던 노리개와 의복을 챙겨 들고, “손그릇에 쓰던 기명은 의구(依舊)히 있건만, 임자는 어디 가고 오지 못하는가?”라며⁷⁵⁾ 언니의 죽

73) 알리 라라, 앞의 책, 27쪽.

74) <김인향전>, 앞의 책, 459쪽.

75) <김인향전>, 위의 책, 같은 곳.

음을 통각하는 장면을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서 유품이라는 잔해는 인함의 주의를 끌고 무기력해 보이던 물질은⁷⁶⁾ 감각을 자극함으로써 상실과 그리움을 한층 강하게 불러온다.

인함의 기물은 죽은 자를 생생하게 대리하는 신체적 기호로 기능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인함의 판단과 행위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인함의 체취가 묻은 의복, 특히 치마가 그 시공간에 놓여 있지 않았더라면 인함의 선택과 죽음의 양상도 달라졌을지 모른다.⁷⁷⁾ 목을 땄 수 있는 치마끈의 물리적 속성이 자살의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치마끈은 죽은 자의 신체를 소환하여 생사가 갈린 자매를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결이 죽음이라는 극단적 형태로 이루어짐으로써 가족의 비극적 파장은 또 한 차례 일렁인다.

이처럼 여성 가족 공동체의 유대와 연합은 의도치 않게 가족의 불안을 응축하고 비극을 가속화하는 추진제가 된다. 이들의 언어와 논리는 가족에 대한 위로, 걱정, 그리움에 긴박된 정동에서 기인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족의 갈등과 비극을 완화하기보다는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함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던 어부들의 형상과 비교하면 더욱 자명해진다.⁷⁸⁾ 가족 구성원들은 저마다 갈등과 비극을 빚어내는 데 기여할 뿐, 정작 비극을 완충하거나 멈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부장제를 대변하는 남성 가족은 물론 비극을 온몸으로 받아낸 여성 가족들도 비극을 연쇄시키는 기폭제로 동원된다는 점은 매한가지다. 그렇

76) 제인 베넷, 문성재 옮김, 『생동하는 물질』, 현실문화, 2020, 41-43쪽.

77) 인함이 남성 가족들에 대한 애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인함이 한 걸음에 한 번씩 집을 돌아보는 행동은 기존 가족에 대한 걱정과 삶에 대한 미련의 다름 아니다. <김인향전>, 앞의 책, 459쪽.

78) <김인향전>, 위의 책, 460쪽.

다고 비극의 원인이 왕씨를 비롯한 여성 가족 구성원에게 있다거나 이들이 가해자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드러난 비극성이 행위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서사 전략의 소산임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 남성 가족 구성원들을 가족의 정동 회로에서 배제한 반면, 계모를 제외한 여성 가족 구성원끼리는 강한 정동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구조화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작품에 파편적으로 등장하는 왕씨는 신체는 소멸했지만 잔존하는 정동 에너지를 통해 가정의 핵심 권력으로 작동한다. 비록 물질적 몸체는 사라졌지만, 왕씨는 유언, 기억, 꿈, 사당을 통해 지속해서 자신의 정동을 순환시킨다. 그녀는 생전에 계모를 미래의 위협자로 규정했고, 사후에는 가족 공동체의 불안과 의심을 추동하며 이들의 감정, 생각, 판단, 결정에 끊임없이 간섭을 일으킨다. 이러한 왕씨의 행위성은 가족 윤리의 메시지가 작동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생전에 유언을 통해 계모를 잘 섬기라고 했던 가족 윤리의 메시지가 계모가 들어온 후에는 더 이상 전달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계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와 도리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가정 문제를 계모에게 오롯이 전가하도록 독자의 시선을 조정하는 장치이며, 그 결과 자식에게 부과된 효리는 윤리적 책무도 은연 중에 서사 이면으로 밀려난다.

이상에서 살폈듯이 <김인향전>에서 작동하는 정동의 강도와 벡터는 가정 구성원마다 다르지만, 가부장에서부터 죽은 친모, 계모, 전처 자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이 비극을 향해 움직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혼 가정은 가족 간 정동의 조율, 교류, 순환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즉 정동적 소통이 실패한 공간임을 보여준 까닭이다. 무엇보다 한편에서는 가족의 정동을 감지하지 못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공명함으로써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다. 결국 재혼 가정은 정동 회로가 이중으로 실패한 공간이 되며, 비극을 완충하거나 저지하지 못한 채 가

족 붕괴에 이르게 된다.

3.2. 가정 밖으로 흐른 정동과 사회적 돌봄 공동체 형성

가정 내부에서 완충되지 못한 정동은 결국 외부 세계로 방향을 틀며 서사의 전환점을 마련한다. 사적 공간에 갇혀 있던 비극의 정동과 가부장이 그토록 은폐하려 했던 문제는, 집 안에서 밖으로, 현실계에서 초월계로,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이행해 가정 바깥의 다양한 행위지들과 접촉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정동의 이행이 재혼 가정의 폐쇄적이고 답답한 현실을 타개하는 역동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재혼 가정을 대체할 새로운 정동 공동체가 탄생한다. 그렇다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난 정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확장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가 어떠한 역동을 통해 비극의 문제를 수습해 나가는지를 살펴보자.

가부장을 제외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내부의 은폐된 문제를 외부로 전달하는 전파자로 움직인다. 예컨대 인향이 죽은 후 집에 돌아온 인형은 초당을 둘러보며 누이가 누명을 쓰고 물에 빠져 죽었으니 용왕에게 극락으로 천도해 줄 것을 아뢰었다.⁷⁹⁾ 인함 또한 친모의 사당에 이르러 언니의 억울함을 고하며 원혼을 달래줄 것을 청했다.⁸⁰⁾ 이는 죽은 이에 대한 애도를 넘어 가정의 문제를 외부로 알리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뿐만 아니라 내부 문제는 초월적 행위자에게 고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현실에 발 디딘 외부자에게도 직접 전달된다. 인함이 어부들에게 “나는 이 고을 김좌수의 딸”이라며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고, 언니가 지난밤 돌아오지 않았으며 심천동으로 가는 길을 묻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그녀의 말을 들은 어부들이 아무리 분한 일이 있더라도 참고 집으로 돌아가라며⁸¹⁾ 인함을 타이르는

79) <김인향전>, 위의 책, 456쪽.

80) <김인향전>, 위의 책, 458-459쪽.

81) <김인향전>, 위의 책, 460쪽.

모습은, 이 가정에 심상치 않은 변고가 발생했음을 이미 감지한 데서 비롯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가족 내 정동은 꿈, 혈서, 의복, 외물 등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를 두루 경유하며 인향을 연민하는 정동 공동체의 결집을 견인한다. 이것이 노파의 소문 또는 춘삼의 편지와 구별되는 물질의 수행성이다. 이러한 소문과 편지는 가정의 문제를 외부로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인향의 정동을 텍스트 안팎의 존재가 포착하는 신호로 작용한다. 그러나 가정 바깥으로 향한 소문의 파동은 정작 외부에서 별다른 사회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 안으로 회귀하여 가부장 김석곡을 위협하는 정동 권력으로 작동한다. 인향이 부정행실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정혼자 유성원을 비롯해 주변인에게 아무런 파장도 일으키지 못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노파의 소문은 인향의 행실에 특정 프레임을 씌워 외부인을 통해 그것을 사실로 구성하는 데 활용될 뿐이다.

결과적으로 이 정보의 파동은 외부의 반향을 이끌어내지는 못하지만, 수치심에 민감한 가부장을 옥죄는 데는 성공한다. 따라서 김석곡이 인향을 조종하고 신속하게 처결한 배경에는 노파의 소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김석곡은 기문의 수치를 인향의 실행 의혹이라는 소문의 형태로 한 차례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즉, 그 경험을 통해 가부장의 신체에 각인된 공포는 김석곡의 몸을 장악하여 판단과 행동까지 지배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정동적 압박이 인향에 대한 처분을 신속히 내리도록 한 것이다.

이와 달리 인향이 죽기 전에 남긴 혈서와 유성원을 위해 준비한 의복 등은 비극을 재혼 가정 밖으로 전파하는 정보의 파동을 일으켜 실질적 효력을 창출한다. 이들은 더 많은 행위자와의 접촉을 유도하며 정동 공동체를 규합하는 구심력으로 작동한다. 이를테면 인향이 죽기 전에 남긴 혈서는 부재하는 인향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죽은 신체의 물질적 잔존물이다.

혈서는 인향의 유언에 따라 부친의 부고와 함께 인형을 통해 뒤늦게 외조모에게 전해진다. “지하에 가서도 가슴에 맺힌 한을 풀 곳이 없다”⁸²⁾ 피로 쓰인 인향의 혈서는 그 물질성 자체로 외조모를 즉각적으로 감응시키며 강렬하게 뒤흔든다. 혈서의 힘은 그 내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검붉은 핏자국은 살아 있던 인향의 신체에서 흘러나온 고통의 강도를 시각과 촉각으로 전달한다. 외조모는 이 잔존물과 마주하는 순간, 인향의 통증을 온몸으로 흡수하며 눈물을 비 오듯 흘리고 비통함을 견디지 못해 거듭 기절한다. 외조모는 인향의 정동에 강하게 공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손녀의 억울함을 염라대왕에게 설원(雪冤)하겠다는⁸³⁾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정동 공동체로서의 주체적 행위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와 슬픔은 인향의 억울함을 현실적으로 해소해줄 권력으로까지는 작용하지 못한다.

이처럼 현실적 해결이 지연됨에 따라 급기야 원혼이 된 인향은 현실계의 인물과 마주하게 되고, 그녀의 해소되지 못한 정동은 가족 테두리를 넘어 사법적 문제 해결력을 지닌 실질적 권력으로 이행하게 된다. 그 결과 비극은 마을과 관청으로 확산되며, 정동 공동체의 규모 역시 한층 확장된다.

그 구체적인 경로를 보려면 심천동 연못의 수행성부터 살펴봐야 한다. 이곳은 인향 자매의 원통함과 분노가 응축된 정동의 진원지이기 때문이다. 인향이 빠져 죽은 후부터 연못은 낮이면 오색구름이 돌고, 밤이면 슬픈 귀곡성이 울려 퍼지는 음산한 공간으로 변모한다. 여기서 생산된 공포감에 행인들은 발걸음을 끊고 이곳을 기피한다. 문제는 이 공포의 파동이 점차 연못의 경계를 넘어 관청까지 잠식한다는 점이다. 원귀를 본 관장들은 놀라 죽고, 병들어 죽는다.⁸⁴⁾ 폭력에 짓눌려 억울하게 죽은 자매는 이렇게 마을 전체를 파괴하는 강력한 폭력적 행위자로 귀환한다.

82) <김인향전>, 위의 책, 462쪽.

83) <김인향전>, 위의 책, 462-463쪽.

84) <김인향전>, 위의 책, 463쪽.

또한 원귀라는 진동원에서 발생한 고강도의 공포는 소문을 타고 더 멀리 퍼져나간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폐읍을 구제하기 위해 전두용을 부사로 파견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관청과 마을의 문제는 국가 권력의 개입으로 이어지며, 문제 해결의 핵심 행위자인 전두용을 불러들이는 데 이른다. 그는 공포를 온몸으로 흡수하여 죽은 이전 관장들과 달리 원귀의 사연을 듣고 원통함을 풀어줌으로써 되풀이되던 비극의 연쇄를 끊어낸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점은 인향 자매로 인해 여러 관장이 죽고 마을이 폐허가 되었음에도 부사가 계모와 그 일당만을 처벌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부사는 인형을 찾아 오백 냥을 주며 가정을 꾸리도록 하고, 인향 자매의 분묘를 잘 살필 것을 명한다.⁸⁵⁾ 이는 가정에서 실패한 돌봄을 사회, 나아가 국가 권력이 대신 수행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향 자매의 폭력적 귀환으로 인해 희생된 관장들의 억울한 정동은 서사 이면에 묻힌다. 그 자리에 자매에 대한 연민과 계모의 만행을 응징한 복수의 쾌감만이 지배적 정서로 남는다. 게다가 서사에서는 사건을 해결하는 동안 두 자매에게는 안타까움과 비감을, 계모에게는 분노를 품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족 파탄의 책임을 계모에게 다시 한번 덧씌우고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가부장제의 모순을 은폐한다.

이처럼 가정 내부에서 끌어안지 못한 정동은 현실 가족을 이탈해 꿈(친모), 혈서(외조모), 소문(마을, 관장, 왕)이라는 물질을 거쳐 죽은 신체, 외친, 마을 공동체, 국가 권력으로 점차 영역을 넓혀 나갔다. 이와 같은 비극의 궤적은 사회 공동체와 국가 권력의 관여를 통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정동 공동체의 외연적 확장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후 현실계와 초월계가 또 한 차례 유기적으로 연대함으로써 정동 공동체의 에너지는 더 큰 폭발력을 발휘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김인향전>에서는

85) <김인향전>, 위의 책, 469쪽.

가정 내부에서 숨기고자 했던 문제가 폭력적인 형태로 외부에 전파되고, 사회적 돌봄이라는 외부 시스템을 통해 해결된다. 이 문제는 비극의 봉합 및 환상적 결말과 연결되므로 장을 달리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3.3. 정동의 회귀와 환상적 재건의 필연성

앞 절에서 재혼 가정 내부에서 시작된 비극이 가족 구성원을 통과해 사회 공동체와 국가 권력의 장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살폈다. 공적 영역에서 다루어진 계모에 대한 처벌은 사건의 종결처럼 보이지만, 비극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 절에서는 확장된 비극이 왜 인향 자매의 재생이라는 환상적 수법으로 종결되는지, 그 수습의 서사적 논리는 무엇인지 해명하고자 한다.

이 문제를 풀려면 재혼 가정에서 촉발된 비극이 원귀로 귀환한 인향 자매에 의해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사건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매로부터 뿔어져 나온 공포의 정동으로 관장이 여럿 죽고 마을이라는 공간은 폐읍이 되는 등 가정의 비극이 사회적 재난으로 이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작품은 계모와 그 일당을 처벌하는 형태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비극의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한 가정의 불행으로 환원해 마무리한다. 그러나 비극의 진정한 종식은 불행을 행복으로 돌려놓는 정동적 전환이 요청된다. 이 때문에 서사는 가족을 재건할 미래 가족으로 유성원을 설정하고, 가족 바깥으로 향했던 정동의 방향을 다시 가족 안으로 회귀시키는 구조적 설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서 서사는 우선, 인향 자매의 죽음에 대한 정보가 유성원 집에 이르도록 한다. 가족들은 모두 자매를 가없이 여기며, 급제 후 돌아온 유성원은 실성통곡하며 깊은 슬픔에 정동된다. 흥미로운 지점은 단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인향을 그토록 곡진하게 애도하며 ‘귀신이지만 이미 내 집사람’⁸⁶⁾이라는 각별한 유대감을 드러낸다는 사실이다. 작품에서는 이를 인향

과의 결혼을 고대한 데서 비롯된 반응으로 제시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유성원이 보인 애도의 진폭은 자못 크다. 그의 애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이되어 그들 역시 죽은 인향을 연민하며 한층 안타깝게 바라보도록 한다.⁸⁷⁾

유성원은 인향의 집을 찾아 그녀를 추모하고, 그곳에서 인향이 자신을 위해 손수 지은 길복을 마주하게 된다. 그 길복에는 예비 신랑을 위해 인향이 들인 시간과 정성, 그리고 혼례의 약속이 응축되어 있다. 길복을 본 순간, 유성원은 인향의 부재와 좌절된 부부 관계를 물질적 실체를 통해 실감하며 통곡한다. 그간 눈물과 애통함으로 표출되던 애도는 길복이라는 물질적 통로를 거쳐 한층 구체적이고도 깊은 추모로 전환된다. 유성원이 윤희를 위로하기 위해 제문을 짓고, 여러 차례 노제를 지낸 행위가 그 양상이다. 제문 또한 인향에 대한 유성원의 진심과 정성이 응축된 추모의 물질적 표상이다. 이러한 정성은 다시 인향을 깊이 감응시켜 인향이 유성원 앞에 나타나는 행위로 이어진다. 그렇게 유성원은 인향의 재생을 돕는 핵심적 행위자로 자리한다.

인향의 재생은 초월계와 현실계의 에너지가 한데 모여 이뤄낸, 정동 공동체의 산물이다. 그 움직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행위자	행위 내용
외조모	염라대왕에게 설원함
유성원	일월성신과 후토 산신령에게 회생 기도를 올림. 인향에게 염라대왕께 발원할 것을 청함
왕씨	옥황상제에게 상소함
김인향	유성원의 말을 좇아 염라대왕에게 발원함
옥황상제	회생수를 내리줌

86) <김인향전>, 위의 책, 470쪽.

87) <김인향전>, 위의 책, 471쪽.

위의 표에서 확인되듯이 인향 자매의 재생은 외조모에서 유성원에 이르기까지 정동 공동체의 염원이 겹겹이 쌓여 옥황상제를 감응시켰기에 가능했다. 이에 감응한 옥황상제가 회생수를 내려줌으로써 억울하게 죽은 자매는 비로소 제 몸을 되찾는다.

이렇게 재혼 가정의 문제는 정동 공동체의 돌봄으로 해소된다. 이 점은 3.2절에서 유보해두었던 물음, 왜 가족 내부에서 조율되지 못한 정동이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의 경계를 이탈해 외부로 흘러갔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는 대목이다.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부사 전두용의 출현, 유성원의 곡진한 애도, 외조모의 분노와 발원, 나아가 옥황상제의 감응에 이르는 모든 행위는 돌봄이라는 사회적 실천의 구현이다. 즉, 이 작품에서는 한 개인이나 가족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가족의 문제를 공동체적 차원에서 분담하고 해소해야 한다는 인식을, ‘정동의 이행과 공명’이라는 서사적 장치들 통해 은밀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가족의 비극이 왜 원귀의 등장과 계모의 처벌을 거쳐 인향 자매의 재생이라는 환상적 수법으로 종결되는지에 대한 해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김인향전>이 현실의 실제 모순을 사실적으로 그렸지만, 문제의 본질에 다가서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거나,⁸⁸⁾ 원귀의 등장과 재생을 향유층이 인향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애도한 결과로⁸⁹⁾ 해석했다. 이러한 논의는 결말의 서사적 한계와 향유 방식을 각각의 관점에서 포착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동의 작동 방식에 비추어 보면, 환상적 결말은 문제의 본질을 회색하는 장치로 기능하는 한편, 인향의 죽음과 재생을 둘러싼 수많은 정동의 응축으로 빚어진 소산이기도 하다.

특히 이 대목에서 주목할 점은 선행연구에서 서사적 한계로 지적되어

88) 이지하, 앞의 논문, 163쪽.

89) 서유석, 앞의 논문, 138-140쪽.

은 환상적 결말 구조는 서사적 필연성에 의해 직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극의 확장 방식과 궤적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죽음 이후 인향에게서 발생한 정동은 꿈(친모), 혈서(외조모), 소문(마을, 관장), 장계(국가, 왕)라는 물질적 행위자를 지나 외가→심천동→관청, 폐읍→국가→유성원 댁을 통과한다. 인향의 죽음이라는 진동원에서 형성된 파장은 가정 안팎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가정 내부에서 조율되지 못한 정동은 죽은 신체, 외친, 마을 공동체, 국가 권력으로 확장된다. 시간이 갈수록 정동의 운동 범위는 넓어지고 그 강도도 거세진다. 그렇게 비극의 정동은 전보다 더 큰 권력의 장으로 이행한다. 그러므로 환상적 결말은 비극을 수습하기 위한 봉합이 아니라 점층적으로 확장되어 온 정동의 운동이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귀착점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죽은 자매가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해원하는 과정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정동의 흐름에서 보면, 이는 소멸하지 않으려는 정동의 운동성으로 해석된다. 인향에게서 비롯된 정동의 흐름을 보면, 자매의 억울함이 다양한 물질적 행위자를 거쳐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그 흐름 안에서 인향의 존재감이 지속해서 환기되며 죽은 자의 생명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즉, 부당한 죽음에 대한 이러한 반복적 호소는 자매의 억울함을 서사적으로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동이 텍스트 안팎에서 계속해서 진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런데 몸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몸에 깃들어 있는 정동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핀 대로 인향으로부터 생성된 정동은 혈서, 꿈, 소문, 원귀라는 다양한 물질적 통로를 거쳐 끊임없이 순환한다. 이는 자신을 담아낼 몸을 찾는 정동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본래 정동은 특정 신체에 새겨지고 그 신체를 거쳐 온전히 현행화되는 속성이 있다. 바뀌 말해 정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아낼 신체가 요구된다.

이 문제는 왜 하필 인향이 죽은 자기 몸으로 들어가 재생하느냐는 질문

과도 맞닿아 있다. 인향이 타인의 신체를 빌리거나 다른 존재로 환생하지 않고 죽은 자기 신체로 되돌아가 다시 살아나는, 즉 본래의 몸으로 회귀하는 방식은 재생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보상이나 권선징악의 귀결을 넘어, 소멸하지 않으려는 정동이 필연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임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원귀의 등장과 재생이라는 환상적 결말은 계모를 응징하여 가부장제 질서를 복원하는 서사적 장치인 동시에 정동을 보존하려는 생존 운동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을 대신하여: 비극의 물질적 경로

지금까지 <김인향전>에 나타난 재혼 가정의 성립, 해체, 그리고 재건에 이르는 과정을 정동과 물질적 얽힘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가족의 비극은 단일한 인물이나 이념, 혈연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물질적 경로를 거쳐 구성되었다. 그렇다면 끝으로, 비극의 물질적 경로가 어떻게 형성되고 의미화되는지를 집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몸, 공간, 정보라는 세 층위로 나누어 고찰하려고 한다.

4.1. 몸의 비대칭적 분배와 정동 경제

<김인향전>에서는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하나의 비극적 몸체로 움직인다. 다만 그 몸은 정동의 불균형적 분배와 비축에 따라 다른 위상을 부여받는다. 우선, 재혼 가정이 감당하지 못한 정동을 여성 가족 구성원의 몸으로 받아내도록 서사가 설계됨으로써 여성들은 비극을 멈추는 자리가 아니라 비극을 감내하고 확산시키는 자리에 놓이게 된다. 이로써 비극의 소용돌이에 있던 여성 인물들은 비극의 극점을 통과하게 된다. 한편, 가부장 김석곡도 비극의 파고에 휩쓸려 죽지만, 그는 비극의 전달자라기보다는 비극의

책임을 떠안은 채 무력하게 소진되는 신체로 형상화된다는 점에서 여성 인물들과는 구별된다.

이때 가족의 몸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유동적 실체로 존재한다. 가정 폭력의 문제를 인물의 성격적 결함이나 인격적 성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계모 정씨에게 잘못이 없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계모가 남매에게 자행한 실질적 폭력과 그에 따른 윤리적 책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간의 논의에서는 비극의 원인을 계모의 악행,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가부장과 전처 자식들의 문제, 혈연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특정 인물의 성격이나 제도적 문제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비극의 원인은 한 주체나 대상에 거주하지 않고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사이를 순환하며 누적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도 작품에서는 몸에 따른 정동의 비축과 분배를 차별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계모라는 한 인간을 악마화하는 논리를 구축한다. 이러한 분배와 축적의 메커니즘은 사라 아메드가 제안한 “정동 경제(affective economies)”로 설명할 수 있다. 아메드는 정동이 대상이나 기호에 내재하지 않고 오직 그 순환의 효과로 생산되며, 이러한 순환이 정신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역을 가로질러 퍼져 있다는 의미에서 경제적인 것이 된다고 본다.⁹⁰⁾

<김인향전>에서도 비극을 지속해서 담아내는 몸과 비극을 끊임없이 생성하는 몸으로 구별함으로써 인물의 몸을 사회적으로 구성해낸다. 이러한 분배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인향과 계모이다. 인향은 비극을 끊임없이 받아내는 동시에 가족의 비극을 심화해 더 큰 비극을 흡수한 몸으로 배치된다. 그 결과 인향은 고통, 슬픔, 연민, 억울함을 감내하는 비극의 수용체로 의미화된다. 반면, 계모는 비극을 파열시킨 몸이면서도 계속

90) 사라 아메드, 시우 율김,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 봄, 2023, 107쪽.

해서 폭력을 증폭하는 주체로 구성되며, 분노, 혐오, 경멸, 불쾌, 야만, 재난을 형성하는 비극의 진동원으로 의미화된다.

더욱이 계모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위협자’로 사전 배치됨으로써 작중 인물뿐만 아니라 독자가 그녀를 지속해서 주시하도록 구성된다. 이는 아메드가 말한 도래할 수 있는 위협의 구조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증오를 특정한 몸으로 환원할 수 없다는 불가능성이야말로 증오가 경제적 의미에서 순환하도록 허용하며, 이 순환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다른 이들을 기다리기 때문에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증오와 위협의 정동은 특정한 몸에 고정되지 않은 채 순환함으로써 감시와 배제의 논리를 끊임없이 갱신하게 된다.⁹¹⁾ 계모 역시 악행 사건 이전부터 언제나 위협이 될 수 있는 자리로 미리 표시되어 그 의미가 순환된다. 그런 점에서 계모의 악마성은 가정 폭력이 발생한 이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조직된 정동 비축과 분배 메커니즘을 통해 개별 사건에 앞서 이미 위협의 자리로 구성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친모와 계모의 모성을 둘러싼 정동 비축과 분배를 불균형적으로 안배함으로써 비극을 특정 인물에게 전가하고 정동을 규범화한다. 이 작품을 관통하는 지배적 정동은 불안과 공포인데, 이때 친모와 계모로부터 파생된 불안과 공포는 서로 다른 질감으로 형상화되고 의미화된다. 이를테면 친모 왕씨가 생성한 불안과 공포는 미래의 위협자에 대한 경고이자 불쌍한 자식을 향한 ‘애끓는 모성’으로 재현함으로써 정당한 정동으로 수용된다. 이와 달리 계모가 형성한 불안과 공포는 자식과 가족 공동체의 안위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폐기해야 할 ‘몹쓸 모성’으로 형상화되어 배척된다. 이처럼 불안과 공포의 정동도 어떤 몸을 경유하는가에 따라 그 정당성과 부당성이 갈라진다.

91) Sara Ahmed, "Affective Economies", *Social Text* 79, 22(2), Duke University Press, 2004, p.123; 135.

계모의 몸에 들러붙은 정동은 아메드식으로 말하면 증오와 공포의 들러붙음이다. 공포는 특정 대상에 본래 내재하는 속성이 아니라 기호들 사이를 미끄러지듯 이동하다 어느 한 몸에 반복적으로 들러붙어 구성되는 정동이다.⁹²⁾ 계모의 몸에도 미래의 위협, 시기, 학대, 기만, 폭력, 가족에 대한 위협의 기호들이 들러붙어 증오와 공포의 대상으로 표면화된 것이다. 계모형 소설의 정동 정치 역시 이러한 정동이 누적된 역사 위에서 작동한다. 그렇게 계모는 가족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재혼 가정을 파괴한 몸으로 서사에 고정되며, 구조적으로 소외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계모의 몸은 서사를 넘어 현실의 가정에서 경계해야 할 위협자로 규범화되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회피해야 할 정동으로 제도화된다. 이로써 계모는 “홍을 깨는 페미니스트, 불행한 귀어들, 우울한 이주자들과 같은 정동의 소외자”로⁹³⁾ 자리 잡으며, 이를 통해 악마화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지속해서 폭력적인 존재로 재현된다.

4.2. 공간의 이행과 정동의 회수

본고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를 이분법적으로 도식화하거나 몸을 고정하지 않고, 서로 얽힌 물질화 과정에서 비극의 형성과 전개를 다루었다. 인간, 사물, 자연, 초월계와 현실계가 겹겹이 얽혀 가족 비극이 형성, 이행, 증폭, 수습되는 여정에 자리한, 관계성과 운동성에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인향전>에서 정동은 가족의 비극을 극대화하고 수습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예컨대 김석곡은 계모를 지속해서 자극하는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살인 승인을 가속하는 역할을 하며, 가부장은 인향을, 인향은 인함을, 인향

92) Sara Ahmed, op.cit., pp.120-127.

93) 사라 아메드, 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앞의 책, 58쪽.

과 인함은 가부장을 죽음에 이르도록 추동한다. 폭력 사건 또한 계모, 노파, 춘삼이라는 인간 행위자뿐만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의 역동적 움직임으로 구성된다. 음식과 의복 결핍, 노동의 과잉, 놀이의 박탈, 공간의 분리는 폭력을 남매의 몸에 저장하고, 떡, 소문, 편지 등은 이를 구체적인 사건으로 조직하며 가족을 정동의 압력 장으로 밀어넣는다.

이때 정동은 인물의 몸과 시공간을 가로지르며 생동하는 물질적 역능으로 구체화된다. 정동은 재혼의 승인에서 폭력의 사건화로, 다시 외부 개입으로 이어지는 동안 비선형적 시간의 흐름을 보이며 사건을 조직한다. 과거가 현실과 미래로 나아가기도 하고, 미래가 현실과 과거로 역류하면서 새로운 정동을 생성하거나 기존 정동에 흡수 또는 반사되어 인물의 움직임과 사건을 촉발한다. 특히 공간과 정보의 물질적 파동은 비극의 흐름을 구성하고 인물과 사건을 몰아붙인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김인향전>의 공간은 정동을 재배열할 뿐만 아니라 흡수, 전이, 증폭하는 기능을 한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했듯이 <김인향전>의 공간은 특수한 구도 아래 배치되어 인물의 사고와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공간성을 규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인향당을 중심으로 근거리에 있는 공간은 정태성으로, 원거리에 배치된 공간은 동태성’으로 파악했고, 김석곡이 머문 공간을 ‘기존의 유교적 사유체계가 정태성을 띠고 있는 폐쇄적 공간’으로⁹⁴⁾ 규정했다.

그러나 작품에 그려진 공간의 수행성에 비추어 보면, 이념에 경도되거나 가족 공동체의 단결과 분리를 형성한 이 공간에 대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김석곡이 발 딛고 있는 공간 역시 외부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계모의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동태적 공간인 까닭이다. 다시 말해 왕씨의 죽음 이후 이 공간은 불안정의 정동을 지속해서 응축하고, 저장도에서 점차 고강

94) 김현화, 『『김인향전』에 나타난 원근(遠近) 구도의 공간 배치와 기능』, 『한국문학논총』 87, 한국문학회, 2021, 10쪽; 15쪽; 5-34쪽.

도의 정동으로 접혀 들며 계모의 폭력을 촉발하는 생동의 장이다. 따라서 <김인향전>의 공간은 이데올로기의 머뭇과 욕망의 실현이라는 구도에서 벗어나 유동적이고 수행적인 공간으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즉, “물질의 흐름이 고정된 공간을 통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정동적 흐름에 의해 재구성되었다고”⁹⁵⁾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의 수행성은 사회적 재난으로 번진 문제를 가정의 문제로 회수하고 은폐하는 공간적 설계로도 작동한다. 이는 비극이 생성되고 흘러가는 정동의 경로를 따라 정리해 보면 한층 명확해진다. 비극은 인향당, 목화밭, 심천동 연못, 외조모 집, 마을(관청), 왕실, 유성원의 집으로 이행하며 점차 강하게 응축, 심화, 확장되다가 다시 인향당과 유성원의 집으로 이동하면서 축소, 통합되는 정동 회로를 형성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극이 외부로 확장되며 그 강도가 점차 거세졌다가 다시 가정이라는 내부로 수렴되는 궤적을 통해 사회적 문제가 어떻게 사적 문제로 귀속되는지를 보여준다는 데 있다. 이렇듯 공간은 비극의 물질적 경로이자 비극이 어떻게 생성되고 순환하며 통합되는지를 여실히 드러내 주는 장치로 작동한다.

4.3. 정보의 물질적 파동과 정동의 간섭

비극을 조직, 증폭, 전환하는 또 하나의 층위는 정보의 물질적 파동과 그에 따른 수행성이다. 소문, 유언, 편지, 제문, 장계 등은 메시지 그 이상의 의미를 함의한다. 앞서 살폈듯이 이들은 그 자체로 행위소로 움직이며, 다른 행위자와 마주쳐 새로운 정동을 산출하고 서사를 추동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로부터 생성된 정동의 방향과 기능이 서로 구별된다. 는 사실이다. 예컨대 노파의 소문과 춘삼의 편지는 가문의 수치를 감추려는 자(가부장 김석곡)와 폭로하려는 자(계모 정씨)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95) 토마스 네일, 최일만 옮김, 『존재와 운동』, 앨피, 2021, 132쪽.

유발하는 기폭제로 작용하며, 폭력이 살인 사건으로 번지는 경로를 마련한다. 한편, 미래의 위협을 알리는 친모 왕씨의 유언과 꿈을 통해 전해지는 정보는 가족 구성원의 불안을 거듭 야기하고 가족 관계를 오염시킨다. 특히 이는 계모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지속해서 재활성화하는 점화 스위치로 기능한다. 왕씨의 생전 유언과 꿈은 과거에 발생한 담화임에도, 현재의 사건에 끊임없이 침투해 미래의 불안과 공포로 표면화되며 인물과 사건을 규율한다. 이처럼 정보의 물질적 파동 역시 정동의 비대칭적 분배와 비선형적 움직임으로 비극에 관여한다.

또한, 심천동과 폐업을 둘러싼 소문처럼 인향 자매의 억울함을 전파하는 물질적 파동은 사회적 공동체의 집결과 비극의 종결을 이끄는 효과를 창출한다. 정동 공동체의 핵심 행위자인 유성원의 반복된 애도는 두터운 부부 서사를 빚어내는 한편 상호 신뢰의 정동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제문은 죽은 원혼을 위로하는 동시에 부부 관계를 선언하는 행위로서 의미를 획득하며, 유성원에게 재생을 주도하는 행위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문으로 전달된 정동은 인향을 감응시켜 현실계로 소환하고, 아직 해소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재생의 단계로 넘기는 통로를 연다.

이처럼 <김인향전>의 목화밭, 떡, 인향당, 연못, 혈서, 의복, 소문, 유언, 편지, 제문 등은 비극의 전개 방향과 강도를 조율하는 행위소로 작용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질감, 강도, 시간성, 공간성을 지닌 채 다른 행위자와 얽혀 새로운 정동을 생성하거나 기존의 정동을 변형했으며, 인물의 감정과 판단을 추동해 사건의 향방을 조형했다. 만약 이들이 부재하거나 다른 사물로 교체되었다면 인물의 행동과 사건의 결과 또한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인간 행위자는 인간 행위자를 보조하는 상징이나 매개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오히려 다층적 행위자와 얽혀 정동 회로를 직조하고 비극의 연쇄를 촉발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움직였다. 나아가 이들은 비극을 일으키기도 봉합하기도 한 <김인향전>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다.

4.4. 남은 과제

이상에서 살핀 세 축은 정동의 비대칭적 분배, 응축, 이행, 봉합이라는 공동 메커니즘을 공유하면서도 각기 다른 비극을 직조해냈다. 몸은 정동 경제를 통해 계모를 악마화하는 정동 정치로, 공간은 외부로 확장된 비극을 가정 안으로 회수하는 구조로, 정보는 시간을 가로지르며 인물의 감정과 판단에 간섭하는 비선형적 운동으로 비극에 관여했다.

이러한 비극의 정동은 <김인향전>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바깥으로 흘러나가 독자와 공명하며, 사회, 문화, 경제의 여러 층위와 맞물려 또 다른 역학을 빚어낸다. 정동 정치의 작동 방식은 오늘의 가족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재혼 가정의 갈등을 특정 구성원의 문제로 돌리거나 가정 폭력을 특정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여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담론은 오늘날에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비극의 무게를 개인화하여 구조적 책임을 은폐하는 정동 회로 또한 시대를 건너 되풀이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작품이 그려낸 비극은 지금도 유효한 물음을 던진다.

다만 본고에서는 텍스트 내부의 정동 지형을 분석하는 데 논의를 집중했기에 이러한 외부 과장과 현재적 함의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향후 텍스트 안의 정동이 어떻게 독자와 공명하며 오늘의 가족 담론에 접속하는가의 문제는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신해진 전주, 『조선후기 가정소설선』, 월인, 2000, 3-639쪽.
- 박준영, 『신유물론, 물질의 존재론과 정치학』, 그린비, 2023, 5-800쪽.
- 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그위스 편저, 최성희, 김지영, 박혜정 옮김, 『정동 이론』, 갈무리, 2016, 6-608쪽.
-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옮김, 『정동정치』, 갈무리, 2018, 6-384쪽.
- 사라 아메드, 시우 옮김,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 봄, 2023, 4-553쪽.
- 알리 라라 위움, 권명아 옮김, 『정동 연구 지도제작』, 갈무리, 2025, 1-368쪽.
- 이토 마모루, 김미정 옮김, 『정동의 힘』, 갈무리, 2016, 1-182쪽.
- 제인 베넷, 문성재 옮김, 『생동하는 물질』, 현실문화, 2020, 7-335쪽.
- 토마스 네일, 최일만 옮김, 『존재와 운동』, 엘피, 2021, 4-806쪽.
- Phillip Vannini, 김수정 외 8인 공역, 『비재현적 방법론: 연구를 재상상하기』,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9-350쪽.
- 강지영, 「분노와 혐오로 읽는 계모 서사-〈어룡전〉, 〈인향전〉, 〈장화홍련전〉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85, 우리문화회, 2025, 33-56쪽.
- 김현화, 『『김인향전』에 나타난 원근(遠近) 구도의 공간 배치와 기능』, 『한국문학논총』 87, 한국문학회, 2021, 5-34쪽.
- 서유석, 「『김인향전』에 나타나는 애도작업(Travail du deuil)의 두 가지 방향」, 『현대정신분석』, 15(1),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2013, 121-145쪽.
- 윤정환, 「계모를 위한 변명-『장화홍련전』 속 계모의 분노와 좌절」, 『민족문학사연구』 57,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63-86쪽.
- 이승복, 「계모형 가정소설의 갈등 양상과 의미」, 『관악어문연구』 20(1), 서울대학교국어문학과, 1995, 271-291쪽.
- 이지하, 「〈김인향전〉의 인물형상화와 작품지향성의 관계-〈장화홍련전〉과의 비교를 토대로」, 『동양고전연구』 38, 동양고전학회, 2010, 137-167쪽.
- 이채은, 「〈장화홍련전〉 속 정동 이행의 양상과 서사적 효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4, 325-358쪽.
- 조영은, 권정혜, 「불면증에 대한 스트레스와 인지과정의 통합 모형」,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1), 한국임상심리학회, 2012, 135-150쪽.
- 한상현, 「김인향전 주인공의 인격적 성향과 가정비극의 상관성」, 『고전문학연구』 17, 한국고전문학회, 2000, 199-237쪽.
- Brian Massumi, *Parables for the Virtual: Movement, Affect, Sensation*, Duke

- University Press, 2002, pp.1-336.
- Karen Barad,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ke University Press, 2007, pp.1-524.
- Sara Ahmed, "Affective Economies", *Social Text* 79, 22(2), Duke University Press, 2004, pp.117-139.
- Derk P. McCormack, "For the love of pipes and cables: a response to Deborah Thien", *Area* 38(3), 2006, pp.330-332.
- Derk P. McCormack, "Molecular affects in human geographi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39(2), 2007, pp.359-377.
- Hannah Murray, Yasmin Pethania, Evelina Medin, "Survivor Guilt: A Cognitive Approach", *the Cognitive Behaviour Therapist* 14, 2021, pp.1-19.
- Hayden Lorimer, "Cultural geography: Non-representational conditions and concern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2(4), 2008, pp.551-559.
- Karlyle Bistas, Ramneet Grewal, "The Intricacies of Survivor's Guilt: Exploring Its Phenomenon Across Contexts", *Cureus* 15(9), 2023, pp.1-4.
- Raymond L. M. Lee, "Affectivity, subjectivity, and vulnerability: on the new forces of mass hysteria", *Subjectivity* 15, 2022, pp.18-35.
- Tony D. Sampson, "Affect, Cognition and the Neurosciences", *Athenea Digital* 20(2), 2020 pp.1-15.
- Kameron Sanzo, *New Materialism(s), Genealogy of the Posthuman*, April 25, 2018 <https://criticalposthumanism.net/new-materialisms/> (접속일자: 2026.01.11)

ABSTRACT

The Operative Principles of Tragedy and the Narrative Beyond
in the Remarried Family
—Focusing on Affect and Material Entanglement in *The Tale of Kim Inhyang*—

Jung, Hye-kyung

This study re-reads *The Tale of Kim Inhyang*, a late-Joseon stepmother-figure domestic novel, through affect theory and material entanglement, tracing the operative logic of its tragedy beyond particular characters or ideologies.

The tragedy is structurally configured before the stepmother arrives, as the deceased first wife Wang's last words constitute her as a future threat through an affective factual logic. Once integrated into the household, the stepmother becomes the body through which tragedy erupts, yet the tragedy itself is accelerated by an entanglement of the patriarch's suspicion and shame, the children's helplessness, and nonhuman actors. Unresolved within the household, affect flows outward across transcendental and actual realms, mediated through state power and external communities as a form of social care. The sisters' resurrection is not merely vindication but the necessary process by which affect, refusing extinction, reclaims the bodies in which to dwell.

This operative mode unfolds through three axes—body, space, and information. The work separates bodies that endure tragedy from those that generate it and distributes maternal affect asymmetrically, fixing the stepmother as an affective alien. Space functions as a performative apparatus that condenses and seals affect, reducing social catastrophe back to family misfortune. The material vibrations of information—rumors, last words, letters, and funeral orations—operate as actants determining the tragedy's direction.

Key Words The Tale of Kim Inhyang, affect, material entanglement, stepmother, remarried household, affective community, social care, performativity of space

논문투고일: 2026.04.23.

심사완료일: 2026.05.13.

게재확정일: 2026.05.17.

